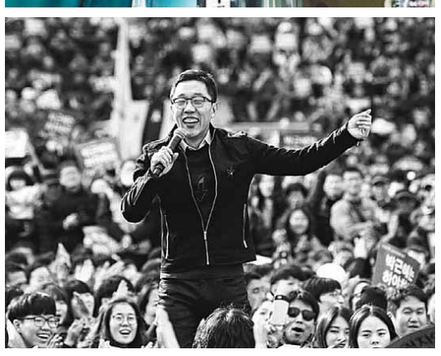
작은
행복과
평범한 일상의
소박한 꿈을 송두리째
부정당했다고 많은 이들이
말한다. 좌절과 분노의 목소리로 광장에
모여 촛불을 밝히는 이유가 그것일 터이다.
현실은 영화보다 더 기가 막히고, 방송뉴스는
이를 고스란히 비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극장에 가지
않는다. 삶을 훼손당한 현실을 똑똑히 지켜보려 한다.
기어이 광장으로 나온 이들이 부르는 저항의
노래는 연일 거리를 울린다. 방송뉴스와
촛불의 광장에서 불린 노래를 향한
시선의 크기는 작지 않다.
그것이 민심이다.



스타들도 광장과 SNS에서 민심의 물결에 합류하고 있다. 솔비가 SNS에 촛불을 형상화한 작품,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에 참여한 유아인과 김제동 모습, 이기우는 인증샷을 올렸다.(맨 위부터) 사진출처 | 각 연예인 SNS

‘촛불 민심’에 극장 울고, 뉴스·음원 웃다

●방송 뉴스

최순실 특검법·대국민 담화 등 관심 증폭 각 방송 뉴스프로그램 시청률 2~3배 급등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라는 비난 속에서 국민의 눈과 귀는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에 쏠렸다. 9월20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관한 첫 보도(한겨레)를 기준으로 각 방송 뉴스프로그램은 작게는 3~4% 포인트, 많게는 기존 수치에서 2~3배 급등했다.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물론 그 분노와 허탈감이 얼마나 높은지 여실히 보여준다.

10월24일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은 최순실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를 공개하며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사전에 검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3%(이하 닐슨코리아)였던 평균 시청률은 이날 4.283%로 급상승했다. 박 대통령의 1차 대국민 담화가 나온 다음날 MBC ‘뉴스데스크’도 평소 5% 시청률에서 7.1%로 상승했다.

10월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차 촛불집회 이후 민심은 더욱 요동쳤다. 10월31일 최씨가 검찰에 소환되면서 KBS 1TV ‘9시뉴스’ 시청률은 21.7%를 기록했다. 3월30일 송중기가 연예인으로는 처음으로 출연(23.3%)한 것과 9월12일 경북 경주 강진 발생(26.7%)에 이어 세 번째 높은 수치다. 또 여야가 ‘최순실 특검법’에 합의한 11월14일 ‘9시뉴스’는 19.0%를 기록했다.

뉴스뿐 아니라 시사교양프로그램인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11월19일 ‘세월호 7시간’(19.0%)을 방송하면서 2004년 이후 최고 수치를 갈아 치웠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극장

11월 극장 총관객수 급감 ‘4년 내 최저치’ 걸출한 흥행작 없고 주말 촛불집회 영향

11월 극장 관객수는 급감했다. 일주일 중 가장 많은 관객이 극장을 찾는 토요일마다 전국적으로 열리는 촛불집회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결과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올해 11월 극장 총 관객은 1268만3175명(영화진흥위원회). 최근 4년간 최저치다. 지난해 11월에는 1527만명, 2014년 1519만명, 2013년 1337만명이었다. 한국영화 관객수의 감소폭은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11월 1041만4836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58만8520명에 불과하다. 10월~11월이 전통적인 극장가 비수기로 꼽힌다는 점을 감안해도 눈에 띄는 수치다.

영화계에서는 ‘촛불집회에 쏠린 민심’을 그 배경으로 짚는다. 현재 상영작 중 뚜렷한 흥행작이 없는 상황에서 시국과 관련해 연일 극적인 이슈가 쏟아지면서 ‘뉴스가 영화보다 재밌다’는 분위기마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멀티플렉스 극장체인 관계자는 1일 “관객 감소의 주요한 원인으로 주말 촛불집회 영향을 간과하기 어렵다”며 “걸출한 흥행작도 없어 감소폭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그나마 흥행 중인 ‘럭키’와 ‘형’은 모두 코미디 장르다. 각박한 현실을 잠시 잊게 하는 ‘웃음’을 내세운 역설의 힘이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음악

집회에서 불린 대중가요 음원 소비 늘어 양희은 전인권 이승환 공연영상 100만회

촛불 민심은 음악소비에서도 드러난다. ‘아침이슬’과 ‘상록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덩크슛’ 등 집회에서 불린 대중가요의 디지털 음원 소비가 11월 크게 늘어났다.

한 음악사이트에 따르면 11월26일 서울 광화문광장 5차 촛불집회에서 양희은이 부른 ‘상록수’는 10월 대비 11월 스트리밍 소비량이 192%나 늘어났다. ‘아침이슬’도 54%가 늘어났다. 11월12일 집회에서 개사해 부른 이승환의 ‘덩크슛’도 131%나 증가해 ‘폭증’ 수준이다.

11월12일과 19일 촛불집회에 참여해 공연한 전인권의 소속 밴드 들국화의 ‘행진’도 32% 늘었다. 이 밖에 11월12일 집회에 나섰던 크라잉넛의 ‘말달리자’는 18.8%, 11월26일 안치환이 ‘하야가 꽃보다 아름다워’로 개사해 부른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는 15.6% 증가했다.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는 11.5%, 정권 퇴진을 외쳤던 조PD ‘친구여’는 9.1% 늘어났다.

유튜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엿볼 수 있다. 현 시국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DJ DOC의 ‘수취인분명’은 11월25일 공개된 후 12월1일 오후 6시 현재 유튜브 조회수 144만회를 넘었다. 11월26일 촛불집회에서 뮤지컬 배우들이 꾸민 뮤지컬 ‘레 미제라블’ 삽입곡 ‘당신은 듣고 있는가 성난 민중의 노래를’ 공연의 몽구스TV 영상도 공개 5일째인 1일 현재 36만회를 넘어섰다. 양희은, 전인권, 이승환 등 가수들의 공연 영상은 이미 100만회에 육박하고 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직접 촛불 들고 나선 차인표·유아인·이준…

■ 최순실 사태를 대하는 연예인의 자세

양희은 안치환 등 노래로 아픔 달래 윤복희는 SNS에 올린 글로 구설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몰고 온 전 국민적 분노에 연예인들도 공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실을 향한 노래와 발언으로 국민의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는 일부 연예인이 불필요한 주장으로 논란을 불러 모으며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기도 하다.

3일 6차 촛불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그동안 많은 가수들이 노래로 국민들의 아픔을 달랬다. 전인권, 양희은, 안치환, 이승환, 노브레인 등이 서울 광화문광장을 울렸다. 3일에는 가수 한영애가 무대에 선다. 연기자 차인표와 유아인, 이준, 원더걸스 예은 등 적지 않은 연예인이 직접 촛불을 들었다. 연기자 신현준, 전혜빈, 가수 윤도현, 2PM 찬성 등도 SNS를 통해 사태에 대한 항의를 표했다. 표현 방식은 제각각이었지만 요구는 민심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일부 연예인은 의도치 않은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안치환

가수 윤복희는 “내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빨갱이들이 날뛰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주소서”라고 SNS에 썼다 논란이 일자 삭제해 구설에 올랐다. 최순실씨의 언니 최순득씨와 관련해 방송인 강석의 이름도 나돌았다. 그는 “아는 사이는 맞지만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억울하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했다. 앞서 일부 연예인들의 이름이 이니셜로 등장했고 싸이, 이승철 등도 이에 대응한 바 있다.

연기자 김유정은 사태와 관련해 엉뚱한 비난을 받는 폭력적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김유정은 SNS에 ‘문어지지마요’라는 문구가 적힌 문어 그림과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말아요. 만약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에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은 “김유정이 광고하는 제품을 사지 않을 것이다. 모두 불매운동해 달라”고 비난했다. 그리고는 “너부터 배우의 길에서 문어지지 마”라는 악담까지 퍼부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다시 만난 세계’로

■ 광장에서 불린 노래들, 그 변천사

엄혹했던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를 외치는 곳에선 비장한 노래가 불렸다. ‘독재 타도’를 외치던 1970년대는 찬송가나 민요 등을 개사한 ‘우리 승리하리라’나 가곡 ‘선구자’ 등이 불렸다. 김민기가 쓰고 양희은이 부른 ‘아침이슬’도 대표적이다.

민주화운동의 열기가 뜨거웠던 1980년대에는 비장한 느낌의 단조 행진곡이 주를 이뤘다. 1982년 나온 ‘임을 위한 행진곡’은 여전히 민주화의 상징곡이 되고 있다. ‘농민가’ ‘단결투쟁가’ 등에도 치열한 투쟁의 비장함이 스몄다. 1987년 6월 항쟁 전후 ‘광야에서’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등이 서정적으로 흐르기도 했다. 하지만 1990년대 초중반을 지나며 운동세력의 기반이 약화하면서 잊혀져 갔다.

2008년 광우병 사태는 대중가요를 불러들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조문을 노랫말 삼은 ‘헌법 제1조’가 등장해 회자되며 인순이의 ‘거위의 꿈’이 울려 퍼졌고, 양희은은 ‘상록수’를 부르기도 했다.

최근 촛불집회에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등 아이돌 노래에서부터 십센치 ‘아메리카노’, 전인권 ‘걱정 말아요 그대’ 등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승환·전인권·이효리가 부른 ‘길가에 버려지다’라는 ‘국민위로곡’이 탄생됐고, 산이와 DJ DOC는 각각 ‘나쁜 X’, ‘수취인분명’으로 시국에 일갈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노랫말의 세월호 추모곡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19일 150만명의 시민이 오후 8시 일제히 1분 동안 촛불을 끄며 저항을 표하는 순간 광화문광장에 울려 퍼지며 감동을 자아냈다.

전인권

이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출발한다. 광장의 요구를 공감의 축제 분위기로 이끌며 대중에게 친근한 노래를 부르게 했다. 가사를 바꿔 노래하고 디지털 음원을 통해 그 음원이 확산되는 것도 새로운 양상이다.

강태규 대중음악 평론가는 “많은 시민이 현재 사태를 상식의 논리로 바라보며 평화적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대중가요가 큰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